논어 3편 팔일 15장 · 원문·풀이

子入太廟，每事問。或曰：「孰謂鄹人之子知禮乎？入太廟，每事問。」子聞之曰：「是禮也！」

독음 · 자입태묘 매사문 혹왈 숙위추인지자지례호 입태묘 매사문 자문지왈 시례야

쉬운 풀이(요약) · 공자가 태묘에서 일을 하나하나 물은 것은 예를 몰라서가 아니라, 삼가 확인하는 것 자체가 예이기 때문이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子 아들 자 / 入 들 입 입 / 太 클 태 태 / 廟 사당 묘 묘

每 매양 매 매 / 事 일 사 사 / 問 물을 문 문 / 或 혹 혹 혹

曰 가로 왈 / 孰 누구 숙 숙 / 謂 고할 위 위 / 鄹 나라이름 추

人 사람 인 / 之 갈 지 / 知 알 지 / 禮 예도 례 례

乎 어조사 호 / 聞 들을 문 문 / 是 이 시 시 / 也 어조사 야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